

느림의 미학, 마음의 고향을 찾아서 한국형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육성



슬로시티란 무엇인가?

슬로시티(Citta Slow) 운동은 느림의 미학(Slow is better) 즉, 자연친화적인 환경 속에서 지역 고유의 먹거리와 전통문화를 느끼면서 삶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고, 현대인들의 인간성 회복 및 마음의 고향을 제공하고자 하는 운동으로 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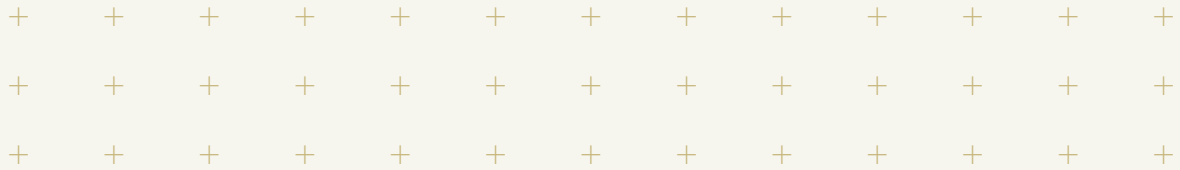
1986년 이탈리아에서 현대사회의 상징인 Fast Food에 대한 저항으로 시작된 이 운동은 1989년 프랑스에서 슬로푸드(Slow Food) 선언문을 채택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1999년 이탈리아 키안티의 그레베시가 슬로시티(Citta Slow)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이후, 최근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 24개국 147개 지역이 슬로시티 국제연맹에 가입되어 있다.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지원 배경

도시화, 산업화 등으로 기계적인 시간에 쫓기고 물질적인 삶을 추구하는 생활방식에 대한 반성으로 슬로시티 운동이 등장하였고 슬로시티가 추구하는 가치인 슬로우 라이프, 슬로푸드가 최근의 우리나라 관광트렌드에 적합한 형태로서 주목을 받게 되었다.

국내 지방자치단체가 슬로시티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대체에너지원 확보, 환경관리시스템 도입 등과 같은 친환경적인 관리, 지역의 특산물 보호 등과 같은 지역특화 정책 등이 요구되는 바 이러한 기준들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문화관광정책의 주요정책으로 슬로시티가 대두되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슬로시티 인증지역을 대상으로 관광자원화 사업을 지원하게 되었다.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사업은 2009년 47억 원, 2010년에는 52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주로 슬로푸드와 전통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즉 기반시설 및 제도 구축을 포함하여 콘텐츠 개발, 교육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였으나 2011년부터



는 기반시설 지원보다는 콘텐츠 중심의 프로그램 사업 위주로 지원하게 되었다.

국내 슬로시티 인증 현황

한국에서는 2006년 한국슬로시티추진위원회가 결성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2007년 12월 전라남도 완도군(청산면), 장흥군(유치면·장평면), 신안군(중도면), 담양군(창평면) 등이 최초로 국제슬로시티 국제연맹에 슬로시티로 인증을 받았으며, 2012년 4월 현재 10개 지역이 슬로시티로 인증되었다.

슬로시티로 지정된 지역의 특징은 지역의 자연과 전통문화가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고 먹을거리, 볼거리 등 생활양식에서 느낌의 철학을 배울 수 있어 지역민들에게는 자긍심을 느끼게 하고 도시민들에게는 마음의 고향 같은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성공사례

슬로시티로 인증받은 10개 슬로시티지역 중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성공한 사례를 살펴보면 영화 “서편제”와 TV 드라마 “봄의 왈츠”의 촬영 장소로 유명한 청산도는 2007년 국제슬로시티연맹으로부터 아시아 최초로 슬로시티 인증을 받았으며, 2011년에는 총 42.195km의 11코스 17길의 청산도 슬로길이 국제슬로시티연맹으로부터 세계 슬로길 1호로 인증받기도 하였다.

청산도에서 매년 4월에 개최되는 슬로걷기 축제는 1일 평균 2천여 명이 방문하며, 주말에는 1만 명이상이 다녀갈 정도로 슬로시티로 성공한 예이다.

2009년 슬로시티로 인증을 받은 경남 하동군 약양면은 다향(茶香), 문향(文香), 도향(都香)의 세 가지

향기가 있는 지역으로 소설 ‘토지’의 무대이기도 하다. 이 지역은 자연생태 보존과 전통문화에 대한 슬로시티 정신에 맞는 관광 자원화 사업으로 관광객이 2011년 한 해 55만 명이 방문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향후 과제

슬로시티로 인증된 대부분의 지역은 산업화 과정에서 낙후된 농어촌지역으로, 우리 주변에서 갈수록 원풍경이 사라져 가고 있는 가운데 비교적 자연경관 및 전통자원이 잘 보존되어 있는 지역이다.

이들 지역의 지역성, 청정성, 전통성 등의 잠재력을 극대화시킨다면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슬로시티 지역을 활용한 “체류형·체험관광을 통해 느리고 여유 있는 삶”의 가치를 체득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관광문화를 정착시키고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과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는 슬로시티로 인증된 지역이 특성화 및 차별화될 수 있도록 지역별로 특성화된 관광콘텐츠를 육성하고 있다. 한국 고유의 향토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사업을 위주로 지원함으로써 한국형 슬로시티를 개발하여 세계에 슬로시티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권오관

문화체육관광부 녹색관광과 사무관
gog6410@korea.kr